

세플러⁺원

Vol. 69 / Summer 2022



Schaeffler is Innovative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혁신은 시작된다.
세플러코리아만의 다른 시선 보기.

SCHAEFFLER

Contents



Schaeffler is Innovative

세플러코리아는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미래 산업과의 연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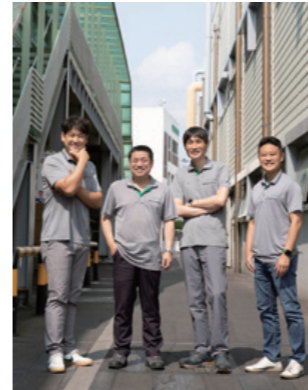


* <세플러+원> 인터뷰 코너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이뤄졌음을 알립니다. <세플러+원>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세플러코리아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세플러+원>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발행일 2022년 7월 15일(통권 제 69호)
 발행인 이병찬
 편집인 민유정
 발행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32F
 기획·디자인 PEOPLE PAGE(대표전화 02.6674.0111)



Theme Ground



- 04 창립기념사
- 12 세플러 재발견
24시간,
스마트하게 모니터링하다
- 16 리더에게 묻다
우리의 성장을 이끄는 혁신력
조영철 상무
- 20 Gruu에게 묻다
혁신, 뭐라고 생각해?
- 24 환상의 팀워크
언제나 무결점을 향해!
안산공장 품질보증팀
- 30 세플러 스토리
혼다 베어링
원가 절감으로 혁신하다
창원공장 단조 세그먼트 이상욱 마스터
- 34 혁신 뽀뽀!
생각의 전환
'나'의 주파수 찾기



Play Ground



- 38 미션클리어
공감왕을 찾아서!
전주공장 티타임 게임 도전기
- 42 세플러가중계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재해예방팀
- 46 마음 톡톡
변화가 어렵다고요?



Schaeffler Ground



- 48 세플러 #고고고 영상 챌린지
가족과 함께한 모든 날들
- 52 Schaeffler Headline
- 55 Thanks & Quiz



대한민국 대표 기업으로의 미래 백년 준비



안녕하십니까? 세플러코리아 임직원 여러분

엔데믹 전환으로, 올해 창립 69주년 기념식은 작년 대비 많은 분들의 얼굴을 마주 보며 창립기념일을 함께 축하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그간 우리 회사는 팬데믹과 국제 공급망 붕괴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큰 성과는 외부 충격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극복함과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와 운영 방식의 기초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종업원의 안전과 비즈니스의 확대, 수익성 강화, 재고 개선 그리고 여러 방역 활동 등. 회사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한뜻으로 노력해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은 우리 회사 설립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창립 70주년을 목전에 두고 그간 우리의 발자취를 돌아보게 됩니다. 동시에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30년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합니다. 기업은 성공과 실패라는 굴곡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과거에 눈부신 성공을 거둔 기업이라 할지라도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지혜롭게 이겨내며 더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지난해 시작하여 2년째를 맞이하는 3개년 중점 추진전략인 'Korea Value Creation'은 'Korea Transformation'에서 완성된 기업 전환의 역량을 코로나19로 조정된 비즈니스 규모와 변화된 성장패턴에 대응하여 미래에 최적화된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가치 지향적인 집중을 통해 성장과 혁신을 동시에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올해 초 'Korea Value Creation'의 보다 확실한 수행을 위해, 4가지 우선순위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사업전환 속도의 가속화', 'Right Sizing Project의 집중', '기업 차원의 지속가능성 기반 확보', '다양성 확대'입니다.

이 4가지 우선순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년 창립 7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3개년 중점추진전략인 'Korea Value Creation'의 완성과 지금까지 불확실했던 미래 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성공적인 세플러코리아인으로 자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세플러코리아가 100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성장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역사는 현재라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 '선'을 이루며 만들어집니다. 비록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쉽지않은 않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오늘의 과업을 완수하고 내일을 위하여 열정과 창의력을 발휘해 격변하는 역사를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갑시다.

이만 창립기념사를 마치며, 장기근속 및 모범사원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세플러코리아 구성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이병찬



6월 13일 세플러코리아 창원1공장에서 열린 69주년 기념행사에서 세플러코리아 이병찬 대표(앞줄 오른쪽 네번째)와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점 전략 추진 내년 완성, 한국 대표기업 성장 디딤돌 마련할 것”

세플러코리아가 6월 13일 창립 69주년을 맞아 온·오프라인으로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기념식은 그동안 서울사무소에서 마련되던 관례를 깨고 현장 중시 경영 차원에서 처음으로 주력 생산공장인 창원1공장장에서 진행됐다. 이에 서울사무소를 비롯한 전국 5개 공장, 3개 물류센터, 영업지점 및 연구소 직원들이 창립기념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icrosoft Teams)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이병찬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2023년 창립 70주년을 목전에 두고 그동안 3개년 중점 전략으로 추진해온 ‘Korea Value Creation’을 완성해 100년 한국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업무 수행에 있어 ‘사업전환 속도의 가속화’, ‘Right Sizing Project의 집중’, ‘기업차원의 지속가능성 기반 확보’, ‘다양성 확대’ 등 4가지를 우선순위에 둘 것”을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 각 사업장은 장기근속 등에 대한 시상식을 함께 진행했다. 세플러코리아는 매년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와 모범사원을 창립기념식에 표창하고 있다. 올해는 장기근속자 111명과 모범사원 32명 등 143명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한편, 기념식이 열린 창원1공장은 1970년대 준공된 이후 현대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에 소요되는 볼베어링과 테이퍼 롤러 베어링을 비롯해 미래형 모빌리티에 적용되는 특수베어링 등 초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세플러코리아의 주력 공장 가운데 하나다.



2022 세플러코리아 장기근속상 수상 명단



유경호 대형볼&워터펌프베어링 세그먼트



안사근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전주
박승석 설비보전 전주
최운규 설비보전 전주
유재영 설비보전 전주
김성완 업무지원 전주
이성천 볼베어링 세그먼트
정양하 차공구서비스 전주
이덕상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안산
서영태 볼베어링 세그먼트 전주
최현만 사민영업
이장희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전주
권미영 HR서비스

심대섭 볼베어링 세그먼트
정용력 볼베어링 세그먼트
오병곤 차공구서비스 전주
김동길 볼베어링 세그먼트
박주일 Purchasing Industrial
김정오 품질보증 전주
유성용 설비보전 전주
전선근 휠베어링 세그먼트
정은화 Customer Service & Material Management
김주일 Customer Service·창원
이영곤 볼베어링 세그먼트
김선주 볼베어링 세그먼트

이수석 테이퍼롤러베어링 세그먼트
배봉주 볼베어링 세그먼트
이은재 볼베어링 세그먼트
김병훈 휠베어링 세그먼트
이윤호 휠베어링 세그먼트
양기생 휠베어링 세그먼트
최규철 HR 전주(노동조합)
김성준 설비보전 창원 1
서형운 창ыл물류
추형식 대형볼&워터펌프베어링 세그먼트



송창우 소형중형볼베어링 세그먼트
황삼욱 대형볼&워터펌프베어링 세그먼트
장창환 테이퍼롤러베어링 세그먼트
서현동 테이퍼롤러베어링 세그먼트
한재기 선삭 세그먼트
조두상 생산계획 Industrial 세그먼트
박정웅 설비보전 창원
최재호 공정기술 전주
김병훈 휠베어링 세그먼트
김호중 새시 어플리케이션 세그먼트
손영석 엔진부품 세그먼트
김후천 품질보증 안산
정지현 R&D Industrial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배수현 BU 메인 베어링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이겨레 E-Mobility BD 영업
이원순 중부 직남영업
추인혜 HR 창원 환경안전
안성준 물류품질
이창훈 무브



이미정 Order Processing Industrial AP
서동연 엔진부품 세그먼트
류상봉 Purchasing Strategy & Strat.Supplier Mgmt.
김성만 Global Technology Service AP
임상진 품질보증 안산
정진성 Customer Service & Material Management
이금규 엔진부품 세그먼트
강원환 BU 메인 베어링

서재국 엔진부품 세그먼트
김종혁 BD 엔지니어링 & 트랜스미션 시스템 영업
송은미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전주
안치훈 물류
손영석 엔진부품 세그먼트
임경호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이인자 Order Processing Industrial AP
정경옥 엔진부품 세그먼트
임승현 엔진부품 세그먼트

박은선 Customer Service Industrial
임태홍 Industrial Pricing
신동근 엔진부품 세그먼트
곽신근 엔진부품 세그먼트
김민수 설비보전 창원
박지희 품질 창원 품질보증
송창우 소형중형볼베어링 세그먼트



남경원 단조 세그먼트
박희동 플랜터
정우진 남부 직남영업
김태철 BD 베어링 국내OEM영업1
김민건 Industry 4.0
이창현 BD E-Mobility R&D 시스템
임주현 볼베어링 설계
박중호 BU 니들 베어링 평가 & 해석
최승호 BU 휠 모듈 평가 & 해석
이정기 엔진 컴포넌트 BU 엔지니어링
주만규 공정기술 안산
박한별 BD 새시시스템 영업
김종민 Purchasing Industrial
조명현 Product Management
한만덕 엔진부품 세그먼트
강은호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김대현 단조 세그먼트
배동혁 볼베어링 설계

장수권 남부 직남영업
서상수 BU 휠 모듈 프로젝트매니저먼트
정지원 R&D Industrial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강한빛 생산계획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김민환 Corporate Competence Center CT A/P
김경환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정동우 공장구매 전주
이선호 대형볼&워터펌프베어링 세그먼트
용미정 관세
송영선 품질 창원 Customer Service
최상윤 차공구서비스 안산
김상종 설비보전 안산
이건희 볼베어링 세그먼트
조완신 공장구매 전주
김석철 휠베어링 세그먼트
김성원 볼베어링 세그먼트

박상현 볼베어링 세그먼트
유규열 볼베어링 세그먼트
이대로 설비보전 전주
김영산 볼베어링 세그먼트
서정희 엔진부품 세그먼트
황승현 엔진부품 세그먼트
유석 엔진부품 세그먼트
송영수 설비보전 창원2
김도현 볼베어링 세그먼트
조준영 볼베어링처리 세그먼트
전의영 새시 어플리케이션 세그먼트
최성동 단조 세그먼트
안지훈 안성물류
정승화 엔진부품 세그먼트
김명수 엔진부품 세그먼트
윤양희 엔진부품 세그먼트
김영철 엔진부품 세그먼트
한민수 휠베어링 세그먼트



김영환 볼베어링처리 세그먼트
박성권 테이퍼베어링처리 세그먼트
남경원 단조 세그먼트
이영일 설비보전 창원1
김영재 공정기술 창원 생산기획
손양운 품질 창원
조익진 플랜터
김규열 볼베어링 세그먼트
권장호 볼베어링 세그먼트
오병곤 차공구서비스 전주
신동관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전주
원충희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김광동 공정기술 엔진부품 세그먼트

혁신은 다 익어 저절로 떨어지는 사과가 아니다.
떨어뜨려야 하는 것!



체 게바라 Che Guevara, 혁명가



★★★★
혁신(Innovation)

명사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행동

유의어

변화, 개선, 개척, 전환



우리가 만든 세상은 우리 생각의 과정이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Albert Einstein, 과학자

시도조차 하지 않은 샷은
100% 빗나간다.



웨인 그레츠키 Wayne Gretzky, 아이스하키 선수

모든 인생은 실험이다.
실험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인생이 개선된다.



랄프 왈도 에머슨 Ralph Waldo Emerson, 사상가

모든 기업은 끊임없이 제품을 혁신한다.
성공하는 기업은 다른 기업이
자신의 제품을 도태시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제품을 도태시킨다.



빌게이츠 Bill Gates, 기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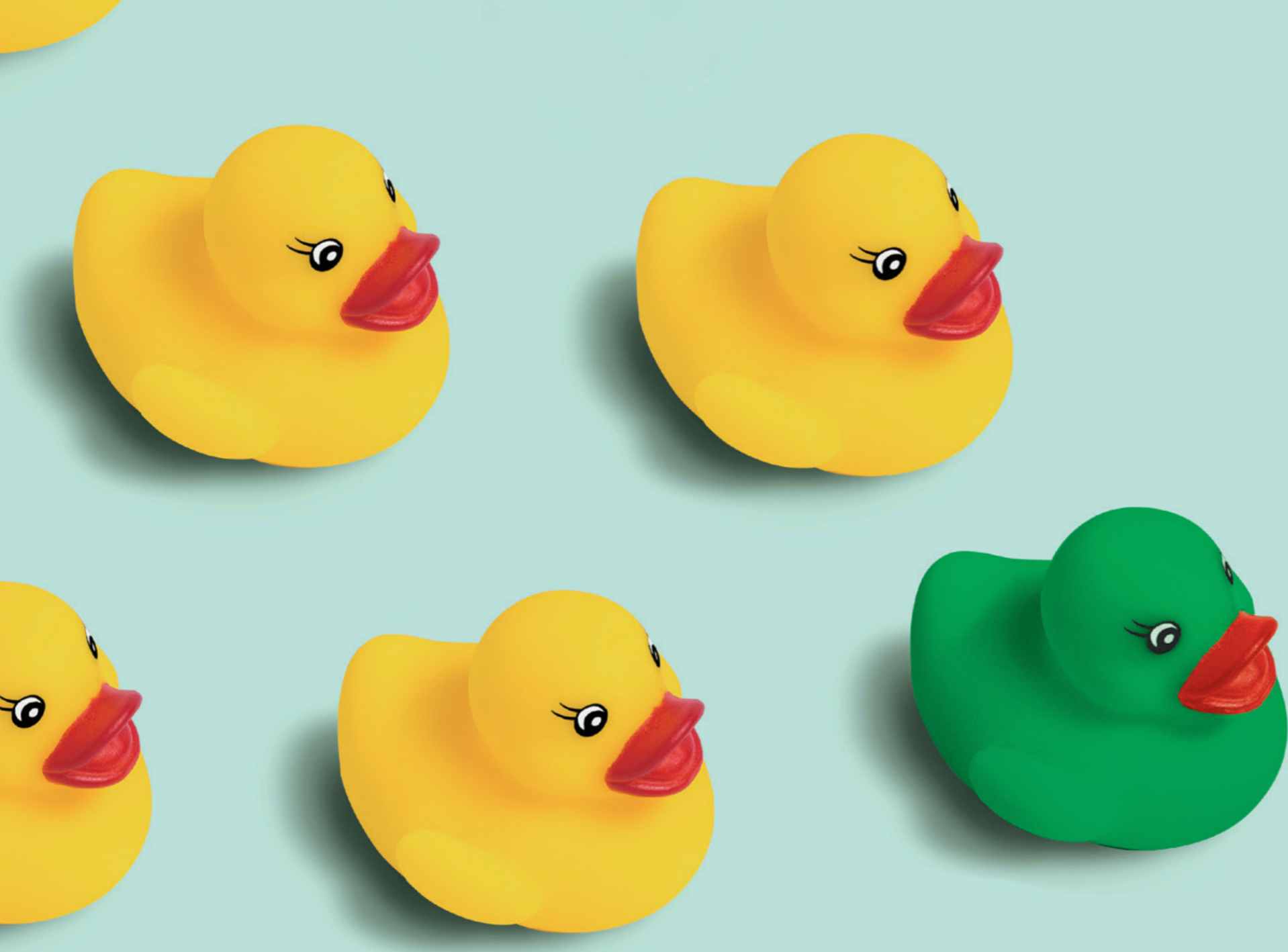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한다.
이럴 때 재빨리 실수를 인정하고
다른 혁신에 열정을 쏟는 것이 최선이다.

스티브 잡스 Steve Jobs, 기업인

사람들은 혁신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혁신은 빨리 움직이고,
많은 것을 시도해 보는 것이다.



마크 저커버그 Mark Zuckerberg, 기업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

헨리 포드 Henry Ford, 기업인

THEME GROUND

혁신이 주는 말의 무게 때문에, 혁신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루하루가 조금씩 다르듯, 혁신도 매일 조금씩 다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는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에, 오늘도 혁신할 수 있습니다!

24 Hours OPTIME



24시간, 스마트하게 모니터링하다

세플러코리아는 IoT 기반의 스마트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옵타임(OPTIME)’을 선보였습니다. 이제, 현장에서는 수동적인 관리 대신 자동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추적,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플러코리아는 인더스트리 4.0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팩토리로 전환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플러코리아 혁신의 출발에는 ‘고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하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은 무엇일까?

이 물음의 답을 얻기 위해
세플러코리아는 매일매일, ‘혁신’해왔습니다.

스마트함의 결정체, 옵타임

스마트팩토리 시대를 이끌어가고자 세플러코리아는 현장의 결함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옵타임을 선보이며 또 한 번의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고객들은 옵타임을 설치함으로써 설비와 부품 등 장비 상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기본으로 고장을 사전에 예측·분석하는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옵타임은 ‘혁신의 바로미터’라 일컬어지는 독일 내 최고 권위의 ‘인더스트리4.0 혁신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제품의 기능, 스마트함, 혁신성 세 가지를 기준으로 매년 최고의 제품을 선정하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스마트 제품’과 ‘산업 디자인’ 부문에서 동시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세플러코리아는 69년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솔루션 서비스 분야를 새롭게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Innovation D.N.A





현대자동차그룹 인사팀 제공

모든 기업이 '혁신'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조영철 상무는 '혁신'에 대해 개인과 조직 모두 뒷받침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세플러코리아의 혁신의 의미를 되짚어본다.

우리의 성장을 이끄는 혁신력

Hyundai GKAM

조영철 상무

PROFILE 조영철 상무는 다양한 분야를 섭렵한 전문가다. 그는 2005년 세플러코리아 전주공장 생산품인 DMFW 생산 시작과 함께 품질 엔지니어로 첫발을 내딛은 이후 영업파트로 한차례 분야를 바꾸었다. 현대자동차와 관련한 토크 컨버터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영업파트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업무를 또 한 차례 바꾸며, 세플러미국에서 2년간 프로젝트 매니저를 담당했다. 2017년 세플러코리아에 복귀해 댐퍼/클러치 BU장 및 BD Transmission System 국내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22년 1월부터 HMC Global KEY ACCOUNT 매니저이자 GKAM HMC 사업부장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번 사보 테마가 ‘혁신’입니다.

세플러가 직면한 혁신 과제를 말씀해주세요.

세플러가 직면한 혁신 과제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한 지속 가능성 그리고 친환경에 대해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잖아요. 세플러 또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술혁신을 통해 기존 내연기관의 탄소 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하이브리드와 친환경 전기차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플러가 직면한 혁신 과제는 환경과 관련한 스마트한 제품 생산, 시스템 및 솔루션 제공을 통해 새로운 사업의 동력을 찾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현시점에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인재 확보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규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세플러의 Foundation 사업부로부터 든든한 지원이 뒷받침 돼야죠. 여기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의 최적화 및 세플러의 가치가 극대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쟁력이 없거나 수익성이 없는 제품들에 대한 과감한 퇴출, 고부가가치 제품의 선택을 위해 적극적인 물적 투자와 인적 지원이 이뤄져야겠습니다. 또한 전동화, 자율주행, UAM, 수소, 로봇 사업 등 미래 먹거리로의 사업 전환에 가속화가 진행돼야 하

는 시점에서 기업과의 인수 합병을 통해 외연 확장으로 시너지를 통한 경쟁력 확보도 필요하겠지요. 저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적보다 지속성을 가진 투자와 인재 확보 그리고 지속 가능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세플러만의 문화적 토양 구축을 강조하고 싶어요.

혁신의 정의는 저마다 다를 것 같아요.

상무님이 정의한 혁신은 무엇인가요?

새로운 것이라 하여 모두 혁신이라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단순히 새로운 것이라거나 제도 등을 개선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봐요. 혁신의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혁신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 또는 목적에 부합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치를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혁신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인의 자세 그리고 조직의 일하는 방식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를 이끌어내는 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는지는 우리의 준비된 자세, 오너십을 기반으로 한 지속성과 전문성에 달려있어요. 개개인이 책임감을 느끼고, 열정을 다해 지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쌓이면, 어느새 그 분야를 바라보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될 것입니다. 혁신은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혁신을 하기 위해서 개인은 지속적으로 역량을 쌓아가야 하며, 조직은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통해 얻게 된 대가, 즉 개인의 역량을 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조직은 새로운 도전과 그 성패를 통한 위기 대응 능력을 안정적으로 학습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조직 내 심리적 안정감 제공은 물론 작은 실수조차 배움이 되게 하며,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개선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조직 문화 속에서 구성원들과 미래 가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한다면, 우리는 혁신의 주역이 되어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때, 각자 입장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리더는 팀의 구성원들에게 목표 달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리더의 가치관이 조직의 성과나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리더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산업 트렌드에 대한 바른 이해와 더불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

다.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속한 산업 트렌드에 대한 바른 이해와 문제 인식,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인과 조직,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에 대해 바로 알고,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역량 개발에 힘써야 해요. 그리고 그 역량을 혁신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상무님은 리더로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먼저 오늘의 제가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살았는지 스스로 되묻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세플러코리아의 지속 성장을 위해 급속히 변화하는 새로운 시장에서 마켓 리더로서 열심히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혁신, 뭐라고 생각해?

혁신을 뜻하는 'Innovation'은 'In(내부)'과 'Nova(새롭다)'가 결합한 말로, 안에서 시작해 겉까지 새롭게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세플러코리아 내부에서 어떤 새로움을 창조해왔는지, 혁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세플러코리아인들의 눈으로 살펴보았다.

조사기간: 2022.6.1~6.17
응답자: 세플러코리아인 185명

혁신지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중복 응답

열정 27.2%

생각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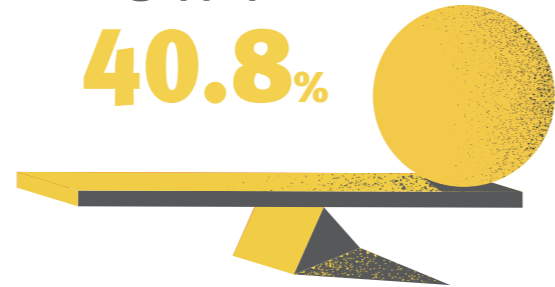
변화 10.9%

체력 2.7%

기타 2.1%

동기부여

40.8%



혁신의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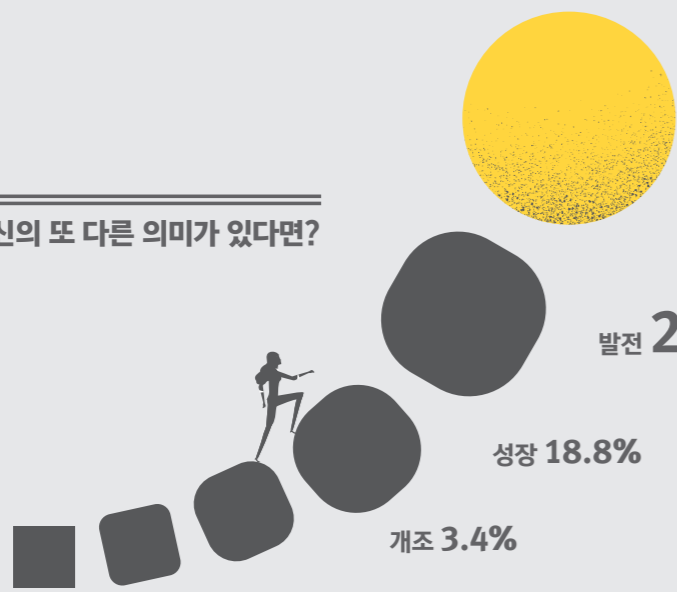
변화 43.6%

발전 29.1%

성장 18.8%

개조 3.4%

기타 5.1%



살면서 혁신을 해본 경험이 있다?

없다 14.5%

있다 85.5%



세플러코리아가 잘해 온
혁신은 무엇인가?

시스템 혁신(운영방식 등)

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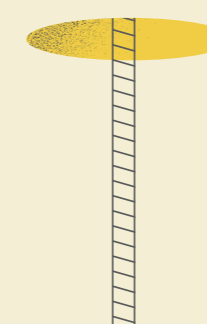


마인드 혁신(생각, 태도 등) 19.7%

기술 혁신(기법, 기능 등) 17.1%

관리 역량 혁신(리더십 등)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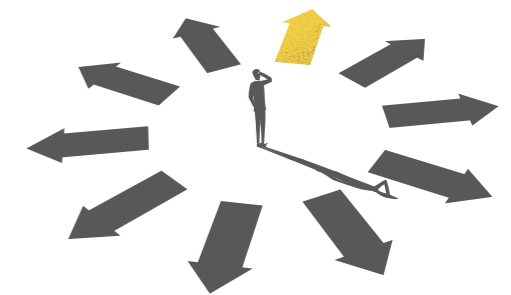
기타 17.1%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개선해야 할 점은?

지식 습득 및 역량 성장 45.6%

문제 인식 24.8% 소통 개선 19.5% 목표 재설정 9.2% 기타 0.9%



세플러코리아인들의 혁신에 관한 말

세플러코리아인들에게 ‘혁신의 아이콘’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IT기업부터 일상 속 소소한 변화까지 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는데요. 새로운 자극제가 될 세플러코리아인들의 생각을 소개합니다.

혁신은 현재보다 나아지는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보편적 편익이 증가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대중교통 환승 할인’은 작지만 굵직한 일상 속 혁신입니다.

저에게 혁신의 아이콘은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나아가 실패의 기회를 장려한다는 그의 철학이 혁신이지 않을까요? 유연한 사고와 역동적인 도전정신으로 아마존의 성공 발판을 마련한 그의 로드맵이 혁신과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혁신의 아이콘이라면 ‘애플’과 ‘스티브 잡스’죠. 애플은 아이폰이라는 혁신적인 아이템을 내놓고 시장을 이끄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기에 스티브 잡스가 새 역사를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방식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주 52시간제’가 혁신이죠. 노동시간과 생산성이 비례한다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효율적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어요.

2002 월드컵 국가대표팀의 히딩크 감독! ‘Seniority’로 대변되는 선후배 간 위계질서 중심의 그라운드 룰을 개선하고 4강 신화라는 성과를 만들어 냈기 때문입니다. 수직적 관계가 축구의 창의성을 저해한다고 본 그의 신선한 안목이 진정한 혁신입니다.



‘테슬라’를 들 수 있습니다. 차량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업용 로봇 수백 대를 조립 라인에 설치하고, 컨베이어 벨트 대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한 로봇 카트 등을 도입했죠. 기존 완성차 업체가 사용하던 방식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수히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혁신의 대표적 사례는 세플러코리아 전주 공장의 볼베어링 비닐 포장기입니다. 30년간 사용했던 원형 비닐 포장 방식의 기계를 캔디 포장 방식으로 바꾸었지요. 비닐 포장은 원형이어야 한다는 경험에서 오는 익숙함과 당연함을 벗어 던지고 비닐 포장의 본질은 살려 일일 포장 가용 능력을 13,000개에서 25,000개로 늘리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로봇의 발명 자체가 혁신이죠.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로 점차 발전하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도 AGV나 Cobot들을 접하고 있잖아요.



‘혁신’ 하면 실리콘 밸리 기업의 일하는 문화가 떠오릅니다. 넓게 보면 혁신은 곧 기업문화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환경이 갖춰져야 혁신이 움틀 수 있습니다.

전에 있던 것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게 혁신이라면, 외식업계에 새로운 활로를 틔 ‘배달의 민족’ 서비스가 대표적인 혁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음식점에서 배포한 전단지를 보고 메뉴를 고르는 게 다였지만, 지금은 여러 소비자가 직접 음식을 맛본 후 후기를 남기고, 또 다른 이들은 이를 참고해 음식을 고를 수 있게 됐습니다. 배달음식 시장의 선택권을 소비자 쪽으로 옮겼다는 데에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달의 민족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 숲을 이루듯, 품질이라는 나무를 가꾸어 세플러코리아라는 울창한 숲을 일구는 이들이 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제품을 위해 제품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세플러코리아의 전체 품질을 관리하는 곳, 바로 품질보증팀이다.

언제나 무결점을 향해!

안산공장 품질보증팀

'안산공장=최우선 품질'이라는 공식

세플러코리아 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안산공장=최고 품질'이라는 공식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안산공장의 제품은 생산에서 판매가 되기까지 생산공정별로 철저한 품질검사를 거치기 때문이다. 심지어 판매 이후 고객이 제품을 사용할 때까지도 품질을 꼼꼼히 확인함으로써 건강한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는 역할을 자처한다.

임성진 마스터는 "품질보증팀은 10년 이상 안산공장에서 경력과 노하우를 쌓은 베테랑으로 구성된 팀이에요. 그래서 작업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부서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 품질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직원을 비롯한 협력사의 직원분들까지, 구성원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해왔기에 품질보증팀이 울창한 숲을 일궈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왼쪽부터 김후진 프로, 임성진 마스터, 변영관 팀장, 최원석 마스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품질보증팀의 혁신 시스템

임성진 마스터는 공을 돌렸지만, 품질보증팀은 품질 관리를 위해 다양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왔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풀 프루프(불량 검출 장비) 도입이다.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동 공정은 불량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해서 불량 검출 장비로 미연의 실수를 방지한다. 불량 검출 장비는 실수를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실수가 발생해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와 관련 최원석 마스터는 "무결점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의 모든 유형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협력해 해결하고자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수동 라인의 불량율을 0.2%까지 낮출 수 있었지요. 빠르고 정확한 해결방안이 모여 이룬 결과였기에 더욱 값 졌습니다"라고 성과를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품질보증팀은 공정 간 현장 상황을 공유해 도출된 문제점은 '내부 워크숍' 등을 통해 작업자 교육과 품질 관련 정보 공유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산재적으로 발생하는 품질 문제의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고객사의 니즈를 작업 현장과 공유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사전에 불량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성과 지금부터!

그 결과 품질보증팀은 대외적으로도 굵직한 성과를 달성하며 우수한 품질 관리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2019, 2021년 2년 연속 '고객불만 ZERO'를 달성했고, 그동안의 노력이 모여 혼다와 아우디 RSTM 신규 고객사로부터 '품질 만족'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최근에는 그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하기 시작해 올해는 최우수 품질 공장에 주어지는 'GOLD MEDAL' 수여를 앞두고 있다. 2019년부터 엔진, 벨트, 베어링 세그먼트 부문별 품질 성과를 3년 연속, 꾸준히 인정받은 것이다. 무엇보다 GOLD MEDAL 수여는 전 세계 세플러 공장들의 품질 성과를 결성한 것이기에 수상의 의미 또한 남다르다.

변영관 팀장은 보다 철저한 준비로 부서의 이미지를 높이고, 세플러코리아 역사상 최초 GOLD MEDAL 수상을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멋진 선례를 남기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안
산
안
락
매
관
보
안
관
리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외부 여건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정적이었던 품질 운영도 급속한 외부 여건의 변화 속에 그 리스크 범위가 넓어지며, 이 여파로 품질에도 타격이 오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무엇보다 현재의 품질을 유지하고 더 좋은 품질로 인정받기 위한 혁신들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품질보증팀은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게임

신뢰와 진실로 품질을 보증하는 이들, 품질보증팀은 평소에도 진실된 이들일까?

세플러코리아 안산공장의 소통 달인만이 모인 품질보증팀. 소통을 통해 협력을 이끌어 성과를 내온 이들의 진심은 어떻게 통해 왔던걸까? '진실된 소통이라면 언제든 통한다'는 이들의 진실을 확인해 보는 시간. 진실일 때는 초록색 불만 켜지고 거짓일 때는 빨간색 불이 들어오며 약한 전류가 흐르는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 보았다.



에필로그

진실만 말하자 진실게임 기계가 고장난 것은 아니냐는 반발이 생길 정도! 이에 진실게임 기계가 정상 작동중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 임성진 마스터가 나섰다. 임성진 부장은 “내가 우리 팀에서 가장 잘 생겼다”라는 질문에 바로 강한 진동으로 ‘응징’을 당하고, 기계의 정상 작동을 확인했다. 게임의 순간마저도 기계의 품질을 확인하는 이들은 진정한 품질보증의 프로들이다.

Q1 나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팀과 일하고 싶다

우리 팀은 깔끔한 일처리와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팀장이 잔소리 할 일이 없을 만큼 민첩하고 능동적인 팀원들이죠. 이런 팀원들과 다음에도 또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거짓 아닐까요?

변영관 팀장의 답변은 **진실!**

Q2 우리 팀장님이 최고다!

팀장님은 의사결정, 업무 요구사항을 빠르게 처리하시는 것은 물론 해외 관계사와 네트워크도 잘 구축해 두셔서 협조 피드백도 무척 빠른 능력 보유자입니다. 팀원들의 마음을 꿰뚫어보시는 분이죠.

최원석 마스터의 답변은 **진실!**

Q3 우리팀은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위로해 줄 사람들이다

오래 같이 일하다보니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죠. 서로 이야기도 잘 하고 잘 들어주니 회사는 물론 개인사를 공유할 때도 있어요. 이런 우리 팀만의 소통이 원동력이 되어 품질의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죠.

임성진 마스터의 답변은 **진실!**

Q4 나는 회사 가는 게 좋다

솔직히 매일 좋지는 않지요. 그래도 함께 즐겁게 일하는 사람들과 있어서 힘들어도, 지칠 때도 금방 회복하며 열심히 일해온 것 같아요.

김후전 프로의 답변은 **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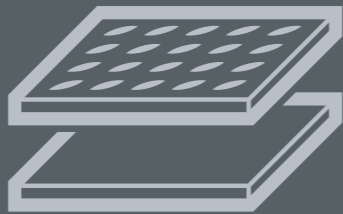
혼다 베어링 원가 절감으로 혁신하다

창원공장 단조 세그먼트 이상욱 마스터

혼다 베어링 생산 관련 기존 프로세스와 차별화를 이뤄내며 외주 비용 감소와 단조 후 버려지는 슬러그 감소로 원가절감 효과를 이뤄냈다. 혼다 베어링 혁신 사례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떠한 과정으로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었는지 창원공장 단조 세그먼트 이상욱 마스터로부터 들어본다.

Case

베어링 제조 관련해서 기존의 프로세스는 외륜, 내륜 1set의 단조품(단조 성형된 채로의 형상인 것)으로 1set의 완제품을 만드는 방법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혼다 사례는 외륜, 내륜 1set의 단조품으로 2set의 완제품을 만들 수 있어 기존 프로세스와 완전히 차별화되었다. 혼다용 베어링 형변의 개선된 방법으로 외주 비용과 단조 후 버려지는 슬러그(Slug) 감소로 원가절감 효과가 있다.



Background

혼다용 베어링은 베어링 살두께((외경-내경)/2)가 얇고, 폭이 작은 박형 베어링으로 자체 단조로 생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형변이었다. 이 때문에 개발 전 자체 포머(Former) 단조가 어려워 파이프재를 절단하여 선삭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에 보다 한 단계 위 설비를 보유한 단조 협력사에 개발을 요청했지만, 협력사는 단조의 어려움으로 거절했다. 고객사 샘플 납기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자체 단조를 개발해 샘플을 제출했다. 하지만 단조 시 고하중으로 인해 설비에 무리가 오고, 금형 수명도 짧아 금형 비용과다 지출과 단조품 품질도 다른 일반 형변에 비해 좋지 않아 선삭 전 추가 공정(디버링, 사이징)을 진행하는 등 양산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생겼다. 이에 하중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부터 출발한 방법이 현재 개선된 2링 프로세스다.



Improving



기존



단조 성형하중
130톤 절감
단조품 품질 개선

Reduction



슬러그 절감 효과



예상 절감 비용보다
낮은 실제 절감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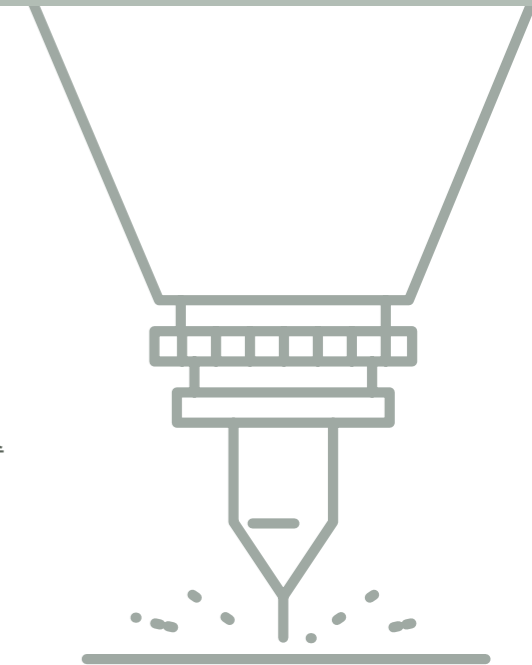
Approach

여러 가정의 수를 짚어보자

'단조 하중을 줄이고, 금형 수명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출발인 만큼 단조의 기본 이론부터 접근했다. 하나씩 가정을 하기 시작했다.

- ① 단조는 성형 시 걸리는 하중에 의해 단조기 기종이 정해진다.
- ② 완제품 치수를 만족시키면서 단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중을 줄일 수 있을까? 무턱대고 선삭 가공량을 많이 준다면, 단조 하중은 줄일 수 있지만, 투입중량이 늘어 재료 비용이 증가되고, 선삭 사이클 타임(Cycle Time)도 늘어나 선삭 비용도 증가된다.
- ③ 외경, 내경으로 늘릴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폭치수를 크게 하면 하중은 줄어들겠지만, 기존 프로세스는 단조의 어려움으로 폭 가공량을 많이 줬는데, 어차피 많이 준 것 조금 더 줘서 단조한 뒤 반으로 잘라 쓸까?
- ④ 반으로 잘라 줄 절단 업체는 있을까? 현재 선삭 협력사에서 가능할까?
- ⑤ 절단 비용은 얼마나 할까?
- ⑥ 재료비, 단조가공비에서 절감한 금액으로 절단 비용 커버가 가능할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2링 프로세스의 개발을 시작했다.



Idea Persuasion

결과가 증명해준다

일반적으로 개선이라고 하면 공정을 단순화하여 리드타임을 줄이는 방법이 주가 되는데, 2링 프로세스는 없는 공정을 추가해서 리드타임이 길어지는 프로세스다. 공정이 복잡해지는 부분 때문에 반대하셨던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 단조부터 선삭까지 각 공정마다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일정 및 측정데이터를 공유하고, 메탈플로우 확인 및 완제품 샘플을 만들어 연구소에서 내구성테스트까지 완료해나갔다. 그 과정에서 단조는 한 번의 테스트로 성공을 했고, 사실상 2링 프로세스의 관건은 절단 공정과 선삭 공정이었다. 절단공정은 그동안 해보지 않은 공정이었고, 선삭 공정은 컴팩트해진 가공량을 어떻게 가공하느냐가 문제였다. 두 공정 모두 외주 선삭 협력사에 진행하는 부분이라 톨 선정, 가공 방법 등 수차례 테스트를 통해 프로세스를 최적화 했고, 최종적으로 단조 공정에 반영했다. 그 결과 수명이 기존 프로세스보다 좋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바로 양산을 시작했다.



창원공장 단조 세그먼트 이상욱 마스터

차근차근, 반복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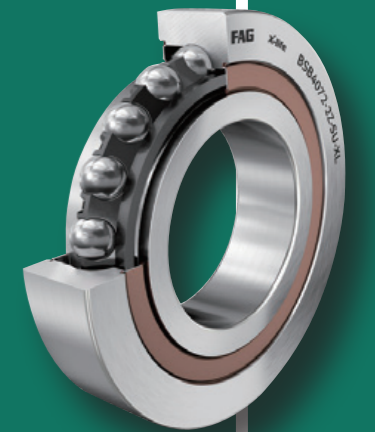
저는 세플러코리아에 2005년도에 입사해서 2022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단조공정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아이디어로 원가절감에 기여했으며,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아이디어 발굴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어요. 현재는 2링 아이디어를 마쓰다에 납품되고 있는 Double Angular Contact Ball Bearing의 내륜에 접목하는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생된 형변이 여럿 있는데, 이 프로세스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세플러코리아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든지 새로운 방법을 한번에 성공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진행하다 막히면 고민하고, 고민해서 찾은 방법이 효과를 보면 또 하나의 지식으로 축적되고, 또 다시 어려움에 막히면 다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경험들을 계속 반복 하다 보면 어느새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플러코리아 여러분, 자신의 분야의 전문가 되길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듯, 실패는 전문가 되기 위한 밑거름입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욱 마스터 Say

Cooperation

협업으로 승부하라

성공 확신이 있다는 건 이미 유사 사례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 아마도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미 양산 중인 아이템을 새로운 방법으로 바꾸어 프로세스를 변경하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데, 처음에 개인적으로는 문제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하면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문제가 없어도 차후 문제가 발생하면 곤란해진다는 조언을 듣고 타 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시작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성과는 단조 세그먼트뿐만 아니라 여러 팀에서의 도움이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 톨센터에서의 단조 금형 조달, 생산 계획에서의 테스트 일정 조율, 현장에서의 테스트 지원, 구매팀에서의 절단 압체 수배, 협력사 개발에서의 선삭 품질 확인 등 여러 협업이 이뤄낸 혁신이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생각의 전환 '나'의 주파수 찾기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 꿈과 행복을 고민하고 있는가? 마음 챙김 전문가 박정효는 중년에 초점을 맞춰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고의 모습을 그리는 '베스트 셀프'를 추천한다. 막연한 이상향을 꿈꾸기보다, 살아온 궤적을 토대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가꿔 나가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마음을 꾸준히 챙기지 않으면 중년이 될수록 한계가 찾아온다고 경고하며, 하루 중 좋았던 점 3가지를 기록하는 '3GT(3 Good Things)' 활동을 제안한다. 우리 뇌는 나쁜 점을 더 깊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3GT'를 찾다 보면 긍정적인 부분을 느끼는 뇌의 영역이 발달해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더 나은 자신을 꿈꾸는 중년이라면, 오늘부터 나의 '베스트 셀프'를 상상해보는 것도 좋겠다.



박정효, 마음 챙김 전문가
'현실적 최고를 꿈꾸는 베스트 셀프'

나의 인생 후반전을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세바시 강연 Sebast Talk

혁신의 첫걸음은 생각의 전환이다. 하지만 비슷한 경험을 하다 보면, 우리는 쉽게 경직된 사고에 갇힌다. 오래된 통념을 깨고 새로운 나의 주파수를 맞춰줄 이들에게 주목해 보자.

뭔가를 경험하며 사소한 불편을 느낄 때가 있다. 이때 누군가는 그 불편함에 집중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이 노력은 종종 새로운 혁신의 출발이 된다. 이호수 전 SK텔레콤 고문은 넷플릭스가 빠르게 영향력을 키운 것 역시 사용자들이 감수해 온 불편함을 경청한 덕분이라고 말한다. 넷플릭스 사례와 같이, 혁신 기업들의 공통점은 내부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어왔다고 설명한다. 혁신을 여전히 고난도 신기술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고객의 아우성"에 대한 반응"이 바로 혁신이라고 말하는 그의 말에 집중해 보자. 익숙한 불편 속에서 혁신의 열쇠를 발견할지도 모른다.



이호수, 전 SK텔레콤 고문
'넷플릭스, 파괴적 혁신의 서막'

일상의 불편함에서 혁신의 실마리를 얻고 싶다면



©EBS 비즈니스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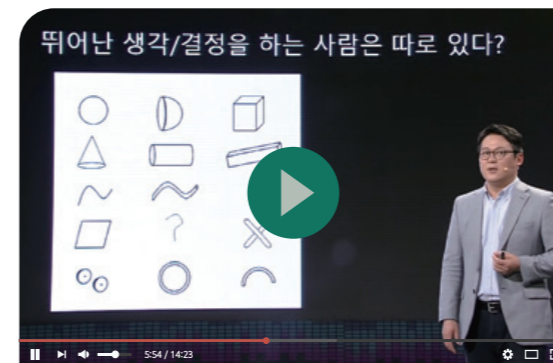
두넛띵클럽, 브랜드 인플루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잘 되고는 싶다면'



다양한 시도 속에서 영감을 찾는다면

혁신을 위한 영감은 작은 시도가 쌓이며 조금씩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브랜드 인플루언서 듀오 '두넛띵클럽'의 이승희, 김규림은 혁신을 위한 영감을 찾는 것을 젖은 수건 이론에 빗대어 설명한다. 한 방울씩 물을 떨어뜨려 젖은 수건이 되는 것처럼, 주변의 모든 자극을 하나씩 흡수하다 보면 영감을 가득 채울 수 있다고 전한다. 예컨대 공간 전시를 염두에 둔 채 다양한 장소에 방문하면, 아주 사소한 요소로부터도 기획에 대한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한 상황에서만 번뜩이는 영감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두넛띵클럽은 말한다. 영감을 발견하는 즐거운 시도는 일상 속 어디서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eo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능력보다 상황이다-메타인지의 힘'



혁신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들 때

당신에게 놓인 조건들로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내 손에 주어진 도구를 먼저 생각하면 큰 꿈을 꿀 수 없다고 말한다. 혁신을 이루기 위해 거창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자주 착각하는 우리에게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바라보는 자세', 곧 메타인지라는 것을 일깨운다. 또 꿈과 목표의 차이도 상기시키며 목표만 품는 사람은 다양한 시각을 갖추기 어려워 혁신적인 인간이 되기 힘들다고 설명한다. 당신이 꿈꾸는 혁신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면,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은 없다는 그의 말에 집중해 보자. 어쩌면 도구를 먼저 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혁신만 선택하고 있던 것일지도 모르기에.

©케네디 스피치

PLAY GROUND



‘당연하다’고 생각해 온 것을 깊게,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있는 것도 다시 보고, 뒤집어도 보고,
멀리서도 바라보세요. 우리의 눈을 가렸던 선입견을 벗어내면,
어느새 혁신이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공감왕을 찾아서!

동료는 제2의 가족!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필수다. 남을 알고, 나를 알기 위해 마련된 '티타임 게임'. 단 한 명의 공감왕을 가리기 위해 전주공장의 4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Masterplanning 전주 김국현 프로
 설비보전 전주 서유성 프로
 품질보증 전주 이정운 마스터
 공정기술 전주 박정수 프로

티타임 게임 도전장

- 게임 방법
- ① 도전용 질문 1개를 골라 솔직하게 대답한다
 - ② 답을 들은 참가자들은 공감 투표를 한다
 - ③ 답변자는 공감 정도만큼 얼음칩을 획득한다
 - ④ 많은 얼음칩을 획득한 참가자가 '공감왕'이 된다



우리 4인방 오늘 최고의 공감왕을 가려보자!

이건 막내가 대답해보자.

최근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나요?

입사 한 달차

저..저요?!

선배님들이 잘 알려주셔서 아직 스트레스 받은 건 없는데...

에이~ 솔직하게 말해봐!

사실... 출장을 다니며 운전은 처음 해보는데, 차선을 바꿀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창원 한번 갔다 오면 익숙해질걸?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나요?

아무래도 일이죠. 많은 일을 빠르게 잘 처리할 때의 그 짜릿함...!

뭐니뭐니 해도... 월급날?

여행 계획을 짤 때가 가장 설레고 행복하죠.

4명 모두 엄지척!

ㅎㅎ 아싸 신난다~!

땡그랑!

혼자 보내는 시간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입사 11년차

제게 혼자만의 시간은 '충전'이죠. 그래야 누군가와 함께할 때 즐겁게 에너지를 쏟을 수 있거든요.



최근에 가장 좋았던 혼자만의 시간은 언제셨나요?

주말이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생각만 했는데, 저도 가끔 혼자만의 즐거움을 느껴봐야겠어요.

(속닥속닥)



지난주에 영화관에서 혼자 영화를 보고 왔는데, 온전히 몰입할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



뉘시도 추천! 혼자 즐길 수 있는 취미로는 딱이라고요~



얼음칩 투하!



마스터님 축하드려요!!

어쩌다보니 내가 1등...?

월급날 다음으로 행복한 날이네요! 감사합니다.



얼음칩 스코어

- 1 이정운 마스터 18/20
- 2 서유성 프로 14/20
- 3 박정수 프로 13/20
- 4 김국현 프로 12/20

이정운 마스터가 오늘의 '공감왕' 등극!

기념셀카 한 방!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다음엔 진짜 카페에서 티타임 가져요!



찰칵!

전주공장 공감왕은 누구?

내가 공감왕이로소이다!

품질보증 전주 이정운 마스터

여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요즘 사원' 분들의 고민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팀원들에게 귀를 활짝 열어두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선배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Masterplanning 전주 김국현 프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선배님들의 성함과 얼굴을 잘 몰랐는데, 함께 게임을 하며 훌륭한 선배님을 세 분이나 알게 되고, 회사 생활 꿀팁도 얻게 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공감은 진실된 대화로부터!

설비보전 전주 서유성 프로

다른 부서원들과 만날 일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회의시간에 못다 한 이야기를 부드럽게 전할 수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저희 팀원들과도 공감의 티타임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공정기술 전주 박정수 프로

게임을 통해 각 팀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던 귀한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도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생기면 모여서 종종 이야기 나눴으면 합니다.



“

김경운 팀장 say

소통과 신뢰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재해예방팀이 되고자 합니다

일터 뒤에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 작업 현장의 안전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올해 초 신설된 재해예방팀의 김경운 팀장과 박충현 프로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들의 ‘중대재해 ZERO’를 위한 출발에 대해 들어본다.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재해예방팀 김경운 팀장, 박충현 프로



박충현 프로 say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안전한 미래를 만드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중대재해 ‘ZERO’, 시작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세플러코리아는 사내 안전을 책임지는 재해예방팀을 신설해 4월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팀의 주축을 이루며 씬 없이 달려온 김경운 팀장과 박충현 프로를 창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한 카페에서 만났다. 오랜만에 바람을 쐬는 두 사람이지만 커피 한잔을 사이에 두고 업무 이야기에 여념이 없다.



세플러코리아 사람들의 안전 제일, 'Employee is First'를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전하는 두 사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한 권리,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 몫을 해나가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그렇게 할 이야기가 많으냐?”는 질문에 두 사람은 “모두 처음 신설된 조직이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김경운 팀장은 “재해예방팀은 한 마디로 ‘안전의, 안전에 의한, 안전을 위한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업무가 구체적인 안전 예방 조치를 통해 세플러코리아의 실질적인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전 표준을 수립하고 실현하는 일이 쉽지는 않잖아요. 더욱이 이전에 없던 조직이기도 하고, 두 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긴밀한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라고 이야기한다. 그러자 박충현 프로는 “일당백을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웃음) 팀이 신설되면서 우선 저희는 세플러코리아의 관리감독자 직급의 임직원 200명 대상으로 네 차례 걸친 안전교육을 진행했어요. 그 사이 팀장님은 내부 감사와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을 오갔고, 저는 외부 대응과 내부 실무를 진행했어요”라고 덧붙인다.

모두가 공감하는 안전 일터 만들기

각자의 역할에 몰두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목표는 ‘모두를 위한, 모두가 동참하는 안전 보건 관리 체계 및 계획 수립’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안전과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밑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다. 지속해서 현장을 오갔다는 김경운 팀장은 현장의 목소리 경청이 왜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노동조합, 협력사 임직원은 물론 종사자 전체의 의견을 듣고 나누며 안전 보건과 보호를 위해 함께해야 하는 자리라면 꼭 찾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체계를 만들고 싶어서였어요.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런 괴리감이 없는 안전 보건 관리체계 및 계획이 수립되어야 실질적으로 ‘중대재해 ZERO’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자 박충현 프로도 “이미 내부에서는 실무자들이 직접 ‘작업 표준’을 만드는 등 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하는 안전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건 당연한 일 같아요”라고 거둔다.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의욕이 넘치는 두 사람이지만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일들도 많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김경운 팀장은 안전 가이드라인을 고민하다 예산 때문에 어렵겠다고 생각하던 차 박충현 프로에게 “이건 예산 때문에 어렵겠지?”라고 고충을 토로했는데, 박충현 프로의 대답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한다. 박충현 프로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너무 예산을 따지다 보면 안전을 위한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라고 한 것. 그런 두 사람은 ‘품질은 만회할 수 있지만 안전은 만회할 길이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재해예방팀은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세플러코리아가 내년이면 창립 70주년을 맞이합니다.

100년 기업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30년을 성장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 직원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세플러코리아의 미래 30년은 일하는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를 위해 실질적이면서 효과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만들어갈 생각입니다”라며 김경운 팀장은 세플러코리아 사람들의 안전 제일, ‘Employee is First’를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전했다. 박충현 프로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팀이 조직되었지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것이 재해예방팀의 사명이라 여기며 미래의 세플러코리아인의 안전을 위해 제 몫을 해나갈 생각이예요”라며 포부를 밝혔다. 이들의 포부처럼 이제 세플러코리아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구축이라는 목표의 실현만 남았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있기에 모두가 공감하는 안전 일터를 조만간 이룰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변화가 어렵다고요?

사람들의 생김새가 다르듯, 성격도 저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늘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즐기는가 하면, 누군가는 변화를 두려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늘 같은 날만 보낼 수 없는 법. 변화와 시도를 해보고 싶지만 망설여지는 서울사무소의 두 사원이 고민을 보내왔다. 두 사원의 고민 솔루션을 지금부터 공개한다.

고민상담_유혜리 강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인적자원개발(HRD)을 전공하고
선거연수원 초빙교수,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저서 <잠깐 스트레스 좀 풀고 올게요>에서 그녀는
스트레스와 관계 다루기에 대해 강조한다.

Q

열정적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과 달리 변화에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도, 만들어내기도 어렵고, 틀 안에 갇힌 정형화된 생활이 편하다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저의 소심해진 성격을 극복하고 혁신을 위한 마인드셋을 갖출 수 있을까요?



서울사무소 S 마스터

Q

저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는 정해진 일정 안에서 원리·원칙대로 꾸준히 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최근 저의 업무 분야에 혁신이 이뤄지면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고, 인원 배치도 변경되다 보니 업무에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불안함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서울사무소 F 프로

A 안녕하세요. 변화를 위한 실행에 도전하는 마음을 원하고 계시네요. 최근 변화의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다는 것을 몸소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변화에 반응하고 시대 흐름에 공감해야 하는 것은 일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많은 고민이 많으시겠지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치타와 하늘에서 이동 중인 제트기를 선명하게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 중인 치타와 제트기를 선명하게 사진에 담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답은 달리는 물체와 속도를 맞춰 이동하며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며 공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바로 업무 상황에도 적용되며 맞추어 나가야 할 역량 중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의 익숙해진 상황과 습관으로 인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일터의 현실이 변화의 흐름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고민에 너무 큰 부담감을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부담감이 원래 잘하고 계신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금은 변화의 시대이기에 속도에 맞춰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도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나쁘지 않아”, “조금 버겁더라도 따라가 보려 애써보자” 등의 다짐을 하신다면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A 조직에서의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요. 지금의 경우도 하고 계신 업무에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며 여러 측면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조직은 ‘혁신’을 화두로 많은 변화를 도모해 새로운 것을 통해서 더 나은 성과 창출을 기대합니다. 변화를 누구나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지인 한 분은 여러 변화 때문에 자기 삶의 방식을 부정당하는 것 같다고 힘든 심정을 토로하면서도 변화를 완강히 거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분도 현실에서 변화의 흐름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받아들이고 적용하려 하면 그것만큼 힘든 것은 없기에 스스로 힘들지 않은 범위에서 작은 변화를 선택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우선 불안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미리 닦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도 떨쳐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차분하게 마음속에서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질 때 행동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실행해 보세요.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먼저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후 변화의 속도에 조금씩 몸을 맡기시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함이 아닌 차분함으로 변화와 조금씩 친해지길 권해드립니다. 파이팅^^

가족과 함께한 모든 날들

세플러코리아 임직원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고고고 영상 챌린지.
이번 호에서는 가족과 함께한 기쁨, 즐거움, 감동의 순간들을 공유합니다.

세플러+원은 2022년 겨울호를 통해 임직원 및 가족에게 #고고고 영상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영상을 응모해주셨고, 올 한 해의 수상작 및 훌륭한 작품들을 봄호에 이어 이번 사보에서도 소개합니다.



수상자 안내	최우수상	정우진 남부직납영업
	우수상	안경리 창원물류 우현정 안성물류
	장려상	박현서 업무지원 창원 전보배 Customer Service 창원 민광운 BD 새시시스템 사업기획
	크리에이티브상	조명현 AAM Product Management 이재홍 테이퍼롤러베어링 세그먼트



우수상



안경리 마스터
창원물류



“어느 날 중2병 아들이 건네준 노래 선물”

늘 엄마 곁에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던 막내아들이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갔어요. 2학년이 되자마자 ‘중2병’이라며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말하더라고요. 말수도 줄어들고 반항기 어린 말투를 장착한,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 버린 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무심한 듯 툭 다가와 동아리 친구들과 촬영한 거라고 영상을 보내주었어요. 어른들이 보기엔 다소 영성하고 부족한 실력으로 만들어진 영상이었지만, 저에겐 그 영상이 다르게 다가왔어요. 아들에게 노래 선물을 받은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들이 보내 준 영상을 #고고고 영상 챌린지에 보내게 됐고, 우수상 수상이라는 기쁜 소식을 아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썩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내심 좋아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물론, 아들에게도 좋은 추억 하나를 만들어 준 것 같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은 가족이 감동받은 ‘막걸리 한잔’”

지난해 외할아버지 생신 때 큰아들이 생신 선물로 노래를 불러 드렸습니다. 아이들의 재롱보다 좋은 생신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썩스러운 법도 한데, 할아버지 생신이라고 노래를 부른 것도 대견하고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카메라를 안 켤 수가 있었겠어요.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예쁘고 귀하지만, 손자의 재롱에 기뻐하시던 모습 또한 잊을 수 없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편찮으시지만, 손주들의 재롱을 보시며 곁에 건강히 오래 머물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려상



전보배 마스터
Customer Service 창원



박현서 마스터
업무지원 창원



장려상



“너의 한 걸음은 가족의 추억이 되어”

#고고고 영상 챌린지에 참여하려고 요리를 주제로 한 영상을 촬영했었어요. 그런데 촬영 결과물이 좋지 않아서 급하게 딸아이의 첫 야외 걸음마 영상으로 '종목'을 바꾸었습니다. 돌 즈음이면 걷기 시작한다던데, 돌이 지나서도 생각보다 늦게 걷는 아이와 걸음마 연습으로 가족 나들이 겸 경주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기에 이르렀지요. 아이는 아빠, 엄마의 손을 잡고 열심히 걸어주었습니다. 아이가 배속에 있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사둔 신발을 신고 저의 손을 잡고 한 발, 두 발 내딛는 모습이 너무 예뻐했습니다. 아기와 손을 잡고 몇 걸음 걷다 보니 쌀쌀한 겨울인데 아기도, 저도 금세 땀이 나면서 특훈 아닌 특훈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혼자서 엄마 신발을 신고 현관 밖으로 나가려고 떼를 쓸 정도로 훌쩍 커버렸네요.

뉴스 하이라이트

세플러코리아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세플러+원>에서 세플러코리아의 소식을 모아 소개합니다.



에너지 고효율 유도가열기 신제품 '히터' 시리즈 출시

세플러그룹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베어링을 장착할 수 있는 에너지 고효율 유도가열기 신제품인 '히터(HEATER)'를 출시했습니다. 유도가열기(Inductive Heating Devices)는 유도전류로 균일하게 가열해 베어링을 안전하면서도 빠르고 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기계 유지보수용 장비입니다. 끓는 오일에 넣거나 가스 오븐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부품 손상 방지, 수명 연장 효과와 함께 운영 비용 및 작업시간 절감이 가능하며, 잔유와 미사용 폐열 등 부산물이 없는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터(HEATER)'는 세플러그룹이 지난해 7월 특수공구 생산업체인 '베가(BEGA International B.V.)'를 인수한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유도가열 제품입니다.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성능과 크기에 따라 '히터-베이직(HEATER-BASIC)'과 '히터-스마트(HEATER-SMART)' 등 2종을 비롯해 총 7가지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세플러그룹은 이번 '히터(HEATER)' 시리즈에 이어 올해 중 또 다른 유도가열 기술 관련 신제품을 출시키로 하는 등 앞으로도 혁신적인 산업기계용 유지보수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세플러그룹 인더스트리4.0 사업부, '라이프타임 솔루션'으로 명칭 변경



세플러그룹이 '인더스트리4.0 사업부'의 명칭을 '세플러 라이프타임 솔루션(Schaeffler Lifetime Solution)'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명칭 변경과 함께 기존 인더스트리4.0 사업부는 기계장비 및 설비 유지보수용 개별 제품 솔루션 서비스를 확장해 고객사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보다 효율화하는 포괄적 고객맞춤형 솔루션 서비스 체제로 본격 전환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사업부의 슬로건은 'Keep Your Machines Rolling'으로 이번 사업부 명칭 변경 및 슬로건은 설비의 핵심 부품인 베어링을 공급하는 세플러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현장에서 기계 및 설비의 유지보수와 작업 관리자의 요구사항 등을 전체 수명 주기(Lifetime)에 걸쳐 충족하겠다는 포부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세플러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자동화된 컨디션 모니터링 솔루션인 '옵타임(OPTIME)' 및 기계의 범용 모니터링을 위한 모듈형 온라인 측정 시스템 '프롤링크(ProLink)' 등 다양한 지능형 유지보수 제품 및 솔루션과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플러는 앞으로 스마트 솔루션과 디지털 서비스를 결합한 고객 맞춤형 유지보수 예측 솔루션 서비스를 산업체 전반으로 확대 적용해 산업현장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플러코리아, 도전과 상생의 가치 실천하는 대학생 봉사단 '에버그린' 10기 모집

세플러코리아가 대학생 봉사단 '에버그린(EVERGREEN)' 10기를 모집합니다. (사)함께하는사랑발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서울 지역에서 활동이 가능한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을 대상으로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총 15명을 선발합니다. 이번 10기 에버그린 봉사단은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총 7회에 걸쳐 유기견 보호소, 쪽방촌 환경미화, 영농철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농가 돕기, 다문화가정, 무료 급식소 봉사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간 중 에버그린의 활동에 드는 모든 비용은 세플러코리아가 전액 지원하며, 활동 우수자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 및 세플러코리아 채용 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지난 2013년 창단 이래 올해로 10기를 맞이한 에버그린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회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왔으며, 그동안 235명의 대학생이 참여해 총 85차례 611시간에 걸쳐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면서 국내 및 해외 곳곳의 사각지대를 지원했습니다. 세플러코리아 사내에 정착된 상생 문화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 에버그린입니다. 올해로 10기를 맞이하는 에버그린 봉사단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이 필요한 많은 이웃에게 세플러코리아의 도전과 상생의 가치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세플러 2023년 '기후 중립' 기반 생산체제 돌입 2021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표

세플러그룹이 이르면 2030년부터 '기후 중립' 기반 생산체제에 돌입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UN으로부터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대응'의 '50대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 선정된 세플러는 지난해 '에코바디스(EcoVadis,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국제적인 평가 기관)' 지속가능성 등급 평가에서 동종업계 상위 1% 수준으로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등급을 받았으며, 내부적으로 설정한 엄격한 기준의 지속가능성 로드맵을 착실하게 실천해 대외적으로도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플러는 2021년 CDP(탄소 공개 프로젝트) '기후변화대응' 등급의 요건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전 연도에 이어 재차 'A-'등급을 받았으며, 수질 등급은 B-에서 'A-'로 격상시켰습니다. 세플러그룹 CEO인 클라우스 로젠펠트(Klaus Rosenfeld)는 "세플러는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수단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그룹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이 분야에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플러그룹,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Climate Action Day 진행

지난 6월 22일 세플러그룹 전 사업장에서 Climate Action Day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83,000여 명에 달하는 세플러그룹의 모든 직원은 90분간 업무를 중단하고 기후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세플러의 임직원들은 약 4,000그룹으로 나뉘어 워크숍에 참가하였고, '친환경 소재'와 '친환경 생산', '친환경 제품' 그리고 '친환경 행동'이라는 네 가지 카테고리 아래 자신들이 각자 담당하는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고안해 냈습니다. Climate Action Day는 사무실과 생산 현장을 막론한 세플러의 모든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전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이를 통해 세플러는 지속 가능한 경영에 있어 기후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으며, 또한 임직원들에게 기후 보호에 대한 의식을 공유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세플러 임직원들은 Climate Action Day를 통해 세플러의 가치 사슬 전체에 걸쳐서 지속 가능한 소재 사용부터 대안 에너지원의 사용량 증가, 전기 자전거 대여에 이르기까지 20,000여 건이 넘는 다양한 기후 보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Thanks & Quiz

기자단

서울 박지수 기자, 김유정 기자
 창원 기대환 기자, 손강우 기자
 안산 정배근 기자
 전주 조규완 기자, 최규철 기자
 연구소 김현용 기자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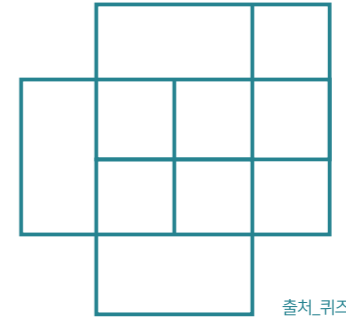
커뮤니케이션 브랜딩
 민유정 팀장, 주윤선 프로

지난 호 당첨자 명단

서울 이찬준 (Industrial 영업관리) 이선종 자녀
 창원 김승현 (Customer Service 창원)
 심정한 (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전보배 (Customer Service 창원)
 추인혜 (업무지원 환경안전)
 신승수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김종훈 (대형볼&워터펌프베어링 세그먼트)
 박진호 (공정기술 창원 생산기획)
 백중현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홍성동 (생산계획 테이퍼베어링 MU)
 안경리 (창원물류)
 김성미 (창원물류)
 김혜경 (창원물류)
 손용암 (테이퍼롤러베어링 세그먼트)
 안산 김영철 (엔진부품 세그먼트)
 전주 조완신 (공장구매 전주)

퀴즈 1

다음 그림에서 정사각형은 총 몇 개일까?



출처_퀴즈코리아

퀴즈 2

세플러코리아의 안전을 책임지며 안전 보건 체계 수립을 위해 조직된 팀의 이름은?

- ①재해예방팀 ②중대재해팀 ③보건팀 ④안전한팀

지난 호 정답 : 3, 4번

참여 방법



jooyun@schaeffler.com

보내실 때

코너 제목/ 이름/ 소속/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세요.

응모 마감

2022년 8월 15일까지

모든 콘텐츠 참여는 휴대폰에서 문자 보내기로 보내주세요.

* 문자 보내기

전화번호 입력창에 전화번호 대신 담당자 메일을 넣어 전송

사보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We pioneer motion

셰플러의 새로운 유도 가열기 HEATER 시리즈

구름 베어링을 안전하고 손쉽게 장착하는 방법

베어링 손상의 약 30%는 잘못된 장착 방식 또는 공구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구름 베어링 및 기타 공작물을 매끄럽고 안전하게 장착할 수 있는 유도 가열 방식으로 팽창에 필요한 온도에 도달한 후 장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견고한 설계 및 낮은 전력 손실로 인한 에너지 사용 절감
- 필요에 따른 다양한 가열 방식 및 로그 기록
- 터치 스크린으로 손쉽게 조작



(문의) 02.311.3000 | industry4.0_korea@schaeffler.com
www.schaeffler.kr

SCHAEFFLER